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5월 26(주일) 제1493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엣드림'

2024 '마리아행전' 6월 12~13일 각 캠퍼스, 14일 양재 사랑홀
6월 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엣드림'을 주제로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막 오른다.

6월 12일(수)과 13일(목)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캠퍼스 성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 14일(금)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모든 캠퍼스가 함께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12일과 13일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메시지는 6월 12

일 이재훈 위임목사 '용서의 엣드림', 13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간구의 엣드림', 14일 이한영 부총장(아신대) '예배의 엣드림'을 주제로 전한다.

2024 마리아행전 '엣드림' 참가신청은 토요일예배와 일요일예배, 수요일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6월 5일(수)까지 신청서와 함께 회비 2만 원을 내고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온라인 및 전화 접수, 행사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복장

은 밝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마리아행전 '엣드림'을 통해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엣드림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빙고(02-3215-3667, 3201)
양재(02-570-7277)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

5월 25일 10주년 기념 포럼, 25~26일 박람회

사회선교본부가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5월 25일(토)과 26일(일) 열린다.

5월 25일(토) 정오에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소극장에서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온누리 사회선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창립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의 나아갈 길', 임희국 교수(장로회신학대학 명예 교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선교'를 주제로 특강한다. 대학청년 사회선교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체 1다락방1사역 사례 발표 및 시상, 미래전략 패널토론회 등도 이어진다.

5월 25일(토)과 26일(일)에는 사회선교 27개 사역팀 홍보 박람회가 열린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사회선교 소개 브로셔 및 자료를 전시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동빙고근린공원, 양재온누리교회 원형광장 및 화평홀 앞에서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통일위원회, 탈북 다큐멘터리 상영

6월 13일 서빙고 본당, 6월 18일 양재 사랑홀

통일위원회에서 탈북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 (매들린 개빈 감독)를 6월 13일(목)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6월 18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상영한다.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상영시간은 총 115분이다.

'비온드 유토피아'는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다. 2023년 작품으로 올해 1월 국내에서도 개봉했다. 거짓의 유토피아 북한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실태, 그곳을 탈출하려는 일가족 5명의 위험한 여정, 그들의 탈출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을 생생하게 담았다.

문의: 010-5792-2390

/ 홍하영 기자

2024 달려라풍당 종료!

6월 5일까지 후원금 입금 및 이벤트 응모

2024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 풍당'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달려라풍당은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어졌다.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걷고, 달리면서 세대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6월 5일까지 참가신청서에 작성한 후원 목표 금액을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5).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를 제작과 국내의 라이선싱에 쓰인다.

한편 2024 달려라 풍당 참가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6월

5일까지 후원금을 입금하고, 달려라 풍당 홈페이지(runfondant.modoo.at)에서 응모하면 된다. 감동적이고 우수한 사연을 남긴 4명에게 '최고 사연상'을 시상한다. 외식상품권 50만 원(1등), 30만 원(2등), 20만 원(3등)을 준다. 운동 최다횟수 및 거리 기록을 세운 3명에게는 '최다/최장 거리상', 달려라풍당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을 남긴 차세대 참가자 5명에게는 '차세대어린이상', 달려라풍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진과 사연을 남긴 10명에게 '베스트 포토상'을 시상한다. 시상자 발표는 6월 20일(목)에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시상식은 6월 27일(목) 열릴 예정이다(장소와 시간 추후 공지). 문의: 02-796-2243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

6월 3~4일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가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을 주제로 열린다. 6월 3일(월)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시 양재동 The-K호텔에서 진행된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에서는

3일 이재훈 위임목사, 최진호 교수(미국 에모리대학교), 김도균 대표(Cloudflare 한국지사)가 강의한다. 4일에는 콘퍼런스 선택강의가 열린다. 이재호 대표(미국 리빙사운드), 조명연 대표(CM MEDIA GROUP)가 '교회 음향 프로되기, 하루면 OK', CGN 제작기술실 '프로들에게 배

우는 촬영과 라이브 중계!', CGN AI 리서치팀, CGN 커뮤니케이션실 'AI 실천편, 디자인, 풍당 200% 활용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fondant.com)나 하단 QR코드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75-9372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강부호 목사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20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26절).

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핍박하려던 공동체 소속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사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다는 경험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

먼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며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밈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25절을 보면 “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29절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구해 줍니다. 또 한 번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26절에서는 제자들과 한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사울의 과거 전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사울 혼자 계시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활약하는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28절).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이 먼저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길에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많이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기에 아나니아를 이동시키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사울이 “더욱더 힘을 얻었다”는 부인이 나옵니다.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 맥락을 볼 때 ‘육체적인 힘이 생겼다’,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고, 무엇을 설명하면 좋을지를 성령이 도와주셔서 탁월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순서를 거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에 합당한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근에서 온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종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 불가능했던 연약함이 극복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삶의 한 영역 한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적합한 전방위적인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들을 도우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딤후 1:12)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라는 것은 특정 임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힘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떨히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히 11:34, 개역개정).

믿음으로 이 일을 경험합니다. 자기 혼자 이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함을 입고, 병든 자가 회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약점을 가능한 상태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모든 상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딤후 4:17, 개역개정).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더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목적은 선포된 말씀이 더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모든 상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서 점점 쇠약해져 가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연약함을 능가하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온전한 증인,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설 때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아들인 자이고, 성령님이 그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27절).

바나바가 가서 “아니다. 사울은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소개하면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초대 선배들, 사도들은 참된 신앙인의 증거,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참된 성도의 표증인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능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능한 부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가정

당하는 죽음 vs 맞이하는 죽음(웰다잉)

잘 죽음으로 잘 살아가는 역설의 세계관

사람은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함으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표현한다. 요즘 나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자주 많이 나오는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싶고, 입만 열면 그 말을 하는가? 나는 죽는 이야기다. ‘잘 죽기’, ‘죽음 준비’, ‘결국은 잘 살기’ 등으로 이어지는 요즘 나의 키워드는 ‘웰다잉(well dying)’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꺼리는 단어다. 그런데 요즘 내 주변에서 보는 흥미로운 현상은 죽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죽음 대처 방법에 대한 갈증이다.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말하고 싶고, 마음껏 드러내고 싶었던 속내가 바로 죽음 이야기 아닐까? 스스로 감히 꺼내지 못했던 죽음 이야기를 대놓고 터뜨리는 나에게 풀어내고 싶었던 실타래를 끄집어내 줬다며 고마워하는 분들을 본다. 이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며,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라!

두 달 전 나는 ‘대한웰다잉협회’ 심화 교육과정 중에 ‘입관 체험’을 했다. 유서를 쓰고 수의를 입고 캄캄한 관 속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경험하며 죽음과 더욱 친해진 느낌이다. 더욱이 바로 다음 날이 부활 주일이

어서 한층 더 생생한 생명의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함께 참여한 동료 교육생들의 반응은 무서웠다, 답답했다, 추웠다, 슬펐다 등으로 다양했다. 나는 관 속에 누워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회한과 아쉬움으로 많이 울기도 했다. 하지만 고단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긴 듯 수의가 가볍고 아주 편안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요즘 중년과 노년의 제1 관심사는 단연코 건강이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쓴다. 건강 지식은 거의 의사 수준이 되어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게 될 형편이다. 그래서 보험과 건강식품이 넘쳐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온갖 살 준비’를 다한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다. 정작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몇 년 전 TV에서 ‘서른아홉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그 드라마 후반에 죽음을 3개월쯤 앞둔 39세 여주인공이 자기 뜻에 따라 친구들이 준비해준 아름다운 사전 이별식을 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동안 살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했다. 세상 떠나기 전 밥 한 끼 대접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이별식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하게 헤어지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실은 나도 심리적 죽음을 경험

했고(두 번의 암 수술과 우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 상담과 임상목회실습(CPE)을 통해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났다. 수술실 환자 기도를 맡았던 경험으로 질병과 죽음은 나에게 각별하게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영역이다. 이 특별한 경험으로 인하여 나는 나의 죽음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여기서 죽음 준비를 자살로 오해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겠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까지 지금 주신 생명과 시간을 정말 감사하며 누릴 것이다. 수술과 치료과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재창조하시고, 놀라운 건강을 다시 주셨다.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는 지금의 나는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이 가기 위해 내가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준비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던 즈음, 친구의 권유로 웰다잉 공부를 시작했다.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을 마치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 교육도 마쳤고 지금은 자서전 쓰기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서 자서전 쓰기 지도와 영상 자서전 만들기를 배우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새로 시작한 이 길을 앞서가고, 함께 가는 귀한 분들이 많아서 든든하다. 특히 암 생존자들(Cancer survivors)의 모임인 ‘암 잇아웃’의 동료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웰다잉사역’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감탄과 감사, 응원을 보내며 나도 동참하려고 한다.

기독교의 논리는 역설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눅 9:2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마 10:39).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며(롬 8:13),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다(고전 15:31). <오자병법>이나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필사즉생’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싸움의 법칙이라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역설이다. 죽어야 산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살 것을 고민하고, 잘 살려고 아등바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유의지로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 되, 현실적인 죽음을 대비함으로 어쩌다 ‘당하는’ 죽음이 아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기꺼이 ‘맞이하는’ 죽음을 기대한다.



김명옥 성도
(중종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You Are Your Body

한 불임 클리닉 광고를 보았다. 그 영상에서 의사는 “아이를 가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막상 몸은 그렇지 않나요?”라고 질문한다. 그러면서 클리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치료를 설명한다. 그 질문은 특이한 것이다. 아니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아이를 갖고 싶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험은 끔찍하다. 하지만 우리가 신체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느끼고 원하는 감정이 신체적 현실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성혁명 사상을 지지한 이래 위와 같은 가정이 다양한 형태로 서구 문화에 퍼져 있다.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 여자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성별에 혼란을 느끼는 기독교인인 한 아이가 “하나님께 내가 남자아이처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여자인 거지”라고 말하는 예도 있다. 하나님이 그 남자아이의 감정을 바꿔 주시지 않으셨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남성 성기 역시 바꿔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감정의 변화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지만, 생물학적 현실의 변화는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외설스럽고, 성행위와 나체가 나오는 영화 시리즈를 보면서 “그저 배우들일 뿐이야”라고 하던가 “그저 이야기일 뿐이야”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을 예로 들었던 폴슨 센터의 세인 모리스의 글이 떠오른다.

이러한 예들은 오래된 이단이자 초기 교회에서 다루고 비난했던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는 현실을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나쁘거나 적어도 무관한 것으로 딱지를 붙인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정말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고 가르쳤다. 육체적인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교부들은 정확하게 이를 이단으로 보았다. 예수님이 정말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힌 것인가? 누가 죽은 사람 중에서 살아난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우

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어떻게 그분이 되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고전 15:14)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가?

영지주의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현실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기독교는 현실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한다. 아담의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물리적인) 사람을 만드시고, (영적으로) 생기를 그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게 아니다. 우리 자체가 영혼이다. 영혼을 지닌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몸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 인간 됨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부수적인 게 아니다. 고대의 많은 이방인에게 기독교의 가르침 중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몸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몸에 관해 하신 말

씀이다. 영광을 입고 부활한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 얼마나 비슷할지는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마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전 15:41-43).

오랜 세월 무신론자와 유물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환상에 갇혀 실제 세계를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물리적 세계, 특히 인간의 몸이 중요하고, 실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의 인간 됨에 몸이 포함된다면 우리의 몸은 정말 중요하다.



존 스톤스트리트
(척 폴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원문: breakpoint(20170222)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1)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킴이 대표)

동성애는 참 어려운 주제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실까? 동성애는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되었을까? 동성애는 자녀와 부모가 이야기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우선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미디어의 과장된 보도로 동성애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바로 성경이다.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죄가 나열되어 있다. 그중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도 포함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동성애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둘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납하는 분은 아니다. 셋째,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 용서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결혼 안에서의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관계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동성애도 포함된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친구가 동성애를 커밍아웃했는데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그 친구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자.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사랑한다면 “친구야 네가 암에 걸렸는데 나랑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친구 마음을 다치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큰 병은 아니야”라며 넘어가야 할까? 이처럼 동성애자 친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동성애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그대로 살면 돼”라고 말한다면 진짜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없어졌지만, 미국에서 탈동성애사역을 하는 ‘엑소더스(Exodus International)’라는 단체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 예방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 동성애는 중독처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그만큼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성애로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 목사님은 동성애는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키(Key)라고 하셨다. 동성애에 끌리는 상황 자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애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헌’을 2015년 10월 26일 결정했다.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 결혼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기를 원하실까?

우선 성경적으로 ‘동성 결혼’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같이 결합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외의 것은 아무리 법이 정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젠더와 관련된 많은 법안이 통과돼 자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이것을 먼저 실행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기본적인 성별 구분이 없어진다. 가족이라는 기본 단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2019년 ‘프리스쿨의 블루리본’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 있고, 기준이 높은 인증단체 ‘NAEYC 콘퍼런스’에서 유치원 교장 선생님들에게 유치원 교육 방향을 발표했다. 아빠의 날, 엄마의 날 대신 ‘가족의 날’, 엄마와 아빠 대신 ‘부모1’, ‘부모2’, 남편과 아내 대신 ‘파트너1’, ‘파트너2’라는 단어를 쓰도록 했다. 이미 미국의 많은 유치원에서 다양한 교재를 통해 동성 부부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 단위가 사라지고 있다. 둘째, 학교 안에서 무분별한 성관계와 동성애 관련 사건 사고를 학교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 ‘AB1266’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이다. 이로 인해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남녀공용 공간이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나고 있다. 대학교는 대부분 혼성주택(Mixed-gender housing)을 제공해서 남자가 같이 생활하는 게 당연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성병이 엄청나게 퍼지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통과된 ‘AB367’ 법안 때문에 모든 공립 학교들은 6학년부터 모든 화장실, 즉 남자화장실에도 생리대 또는 탐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남자아이들의 화장실에 생리대가 있는 게 상상이 가는가?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무분별하게 동성애 등과 같은 잘못된 성가치관이 주입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다음 글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계속).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5편 청소년 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감사를 표현해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좋아요> 5월 21~22일
본문 '왕상 19:14~18', '왕상 20:1~4'



1.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워하면서 숨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많은 백성을 남겨두셨다고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바알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몇 명일까요?

① 500명 ② 8,000명 ③ 700명 ④ 7,000명

2. 아람 왕 벤하닷이 전차와 말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이 너무 무서워서 벤하닷에게 항복했어요. 그리고 벤하닷에게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라고 비굴하게 말했어요. 위기 앞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나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나눠주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천온누리교회 어린이주일 소감

“교회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온누리교회 차세대 한루하입니다. 지난 어린이주일(5월 4일) 부천온누리교회에서 신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소감을 쓰게 되었어요.

즐거운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매년 어린이주일 행사가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정말 많이 와서 함께 즐겁게 보냈어요.

부천온누리교회 본당에 에어바운스랑 여러 가지 게임이 설치되었고, 주차장에는 인생네컷이랑 맛있는 간식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중에서 친구들이랑 인생네컷 사진을 찍은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진으로 이 즐거운 시간을 기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내년에도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늘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과 목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즐거운 어린이날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루하 학생
(부천온누리교회 차세대)

추천도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사디어스 윌리엄스 저 | 두란노 | 19,000원

가수 이효리가 지난 2월 14일 국민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발언한 축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이효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 보다 귀담아들어야 하는 건 여러분 자기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사를 보도한 유튜브 영상을 현재까지 340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도 9,800여 개가 달렸다. 그 반응도 대부분 “당당하다”, “마음에 와닿는다”, “솔직하다” 등 호평 일색이었다. 멋지고 힘찬 축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올바른가? 철학박사이자 조직신학 조교수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단호히 “NO”라고 지적한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저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에서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했다. “‘자기중심성’은 그야말로 세계 종교로서의 지위 획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1~4세기 기독교의 팽창, 7~11세기 이슬람교의 팽창 수준을 바짝 뒤쫓을 정도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온 지구촌으로 퍼져 나간 것이다. ‘자아 숭배’야말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 해도 과언은 아니며,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는 일명 ‘자아 숭배교’의 십계명이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자아

숭배교의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계명 ‘내가 행복하면 된다’, 2계명 ‘존대는 사절이다’, 3계명 ‘내 마음을 따르다’, 4계명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5계명 ‘내 인생은 내 것이다’, 6계명 ‘인생은 한 번뿐이다’, 7계명 ‘답은 내면에 있다’, 8계명 ‘진정성이 최고다’, 9계명 ‘내 꿈은 이루어진다’, 10계명 ‘사랑은 사랑이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 십계명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며 ‘자아’라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다시 돌아가 보자. 정말 가수 이효리가 주장한 것처럼, 마음의 소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이 질문에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이렇게 대답한다. “마음에 복종하라는 말에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끊으려 애쓰다가 도로 술에 손댄 중독자도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것이다. 자신의 간과 사랑하는 이들을 망쳐가면서까지 다시 한잔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백인 우월주의자도 마음을 따른다. 피부색으로 인간의 가치를 따지는 게 언어도단인데도 피부 세포에 색소가 더 많은 이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수하다고 느낀다. 제국주의자 지휘관, 테러리스트, 사기꾼, 강도, 병적인 거짓말쟁이도 하나같이 자신의 마음을 따른다. 도대체

무슨 집단 최면에 걸렸기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도덕 가치의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 말을 들은 몇몇은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주장을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에 선을 선택하며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언제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평생 유지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급에 해당한다. 그 책임을 너무도 빈약하고 유한한 자신의 어깨에 떠맡기는 것이야말로 치졸한 행위다. 그 감당 못 할 짐에 눌러 사방에서 사람들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다. 자이를 규정하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퍼부어질수록 우울과 불안의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 정말 달콤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결말을 말이다. 이 책을 읽고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지 점검해보자.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두란노 신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하나님 이름을 아는 지식》
김신일 저 | 두란노 | 16,000원

《하나님 이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여러 가지다. 김신일 목사의 저서 《하나님 이름을 아는 지식》에서는 ‘엘로힘’, ‘엘 사다이’, ‘여호와 라파’, ‘아도나이’ 등 아홉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사야》 50장 10절에서는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이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더욱 의지할 수 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기쁨을 되찾고 싶은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빚어가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깨달을 때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잔치공동체 곡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 자극에 눈길을 빼앗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찬양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눈물과 고통, 죽음을 건디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 찬양은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하는 성도에게 이 찬양을 추천한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5월에는 환경 기념일도 한가득!

5월에는 환경을 위한 기념일도 한가득하다. 5월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환경 기념일은 10일 ‘바다 식물일’이다.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날이다. 20일은 ‘세계 벌의 날’이다. 2017년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 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다. 1993년 UN이 제정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해당 날짜로 제정했다. 23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이다. 2000년 비영리 거북이 보호단체 ATR(American Tortoise Rescue)에 의해 제정되었다. 25일은 ‘방재의 날’이다. 각종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세계의 바다의 날이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가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한 이유는 통일 신라 시대 바다의 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바다 환경을 위한 실천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 홍하영 기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 되새기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만드는 네 가지 방법

벌써 5월 막바지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많았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이 글은 강미향 목사(가정사역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과 소중한 가정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을 들고 정리한 내용이다.

/ 정리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요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 왜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 가정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정이 깨지고, 아픔을 겪는 원인은 나빠서가 아니다.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부모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습득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배우면서 살아간다. 크리스천들은 왜곡된 가정의 모습을 습득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배워야 한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등을 공부해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 단위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가 가정이다.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프로그램이다. 크리스천들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흘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소통이 잘 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공부해야 할 요소

가정에서 공부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가족 간의 소통(대화)이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대화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기중심적인 소통 때문이다. 자기중심적인 소통은 결국 섭섭함만 남긴다.

소통을 잘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해야 하고, ‘그때 상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대화에서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조언을 많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그 반대여야 한다.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잘 들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요한복음〉14장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대화보다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다. 가정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족여행도 좋다. 대화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둘째, 올바른 재정관이 필요하다. 성경은 돈에 대해 1천 800여 번이나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해 가정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도 성경적 재정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빚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탐욕으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행복의 기준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사는 가정은 부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이다.

셋째, 성경적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성에 대해 많이 왜곡되어 있다. 세상에서의 성은 상업적 도구로 자극적이어서 도움이 되기에

쾌락적이고, 말초신경적 성으로 만들어버렸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다. 생명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성경적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디모데전서〉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게 부부다.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을 위한 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을 누리는 것이다.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강좌 ‘기독교 성가치관학교’에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넷째, 자녀 양육이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가 만지는 만큼 망가진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많이 사랑해 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느 대학에 가고, 어디에 취업할지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팁이 있다.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커가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모가 품어줘야 한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생명의 언어를 들려줘야 한다. 가정에서 언제나 생명의 언어가 흘러들면 좋겠다. “너는 잘 될 거야”,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해줘야 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

습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말이다.

믿지 않는 가정과 크리스천의 가정이 어떻게 다를까? 세상의 가정에도 일반은총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삶의 원리가 있기에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한다. 가정예배를 길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부모와 자녀가 큐티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 된다.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싸매주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한다. 믿음의 가정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행복해진다.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하는 부부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행복하다. 행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훌쩍 넘어갈 힘이 생긴다.

가정에 ‘행복저축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겨도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 크리스천 가정의 행복을 닮으면 좋겠다.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가정의 달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벌써 5월 마지막 주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 행복해진다.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울 것이다. 만약 부모님을 떠나보낸 성도들은 영적 부모와 멘토들을 찾아가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네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나그네 돌보기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



김희성 팀장
(사회선교본부 나그네돌봄팀)

2023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인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규모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 및 외국 국적 동포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난민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만 18,838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인 것이다.

함께 사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13년 9.8%에서 2022년 10%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질문에서도 2013년 86.1%, 2022년 86.6%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주민의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온누리교회는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사회선교본부 나그네돌봄팀이 이주민을 위한 지원 물품이 담긴 천사박스를 전달했다.

“이주민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다”(미 6:8)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는 사회선교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선교부 ‘나그네돌봄팀’은 나그네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 이 땅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한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주했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저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이주민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주민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도록 사회문화적인 노력과 이주민의 적응을 돕는 사회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들과 친밀하고 깊은 접촉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나와 관계없는 이주민은 타인이지만,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민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나그네돌봄팀’의 소망 그리고 실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요삼 1:5)라고 말씀하셨다. 이주민인 나그네를 섬기라는 의미다.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는 말씀에서 복음 전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다. ‘나그네돌봄팀’은 이 말씀을 붙잡고, 관계 중심의 교제와 교제를 통한 선교를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첫째, 우리를 찾아온 나그네는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그네는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 아니므로 연령과 성별, 경제 상태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나그네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나그네는 구원의 대상이며, 동시에 한 대와 배려의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그네는 여전히 차별과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이주민에게 부정적인 한국 사회의 제도적 장벽과 차별로부터 나그네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 온 나그네는 본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선교사역의 동반자다. 우리는 나그네 본국의 상황과 환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나그네돌봄팀’은 탈북민 S자매와 L자매, 예멘 난민 D자매, 이집트 N자매, 미얀마 M자매, R자매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이 나그네를 통해 임재하심을 확신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그네돌봄 사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역칼럼



박진희 집사
(사회선교본부 나그네돌봄팀)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은 이미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다. 자국에서의 탈출 과정, 한국으로의 입국 과정,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곳을 섬기겠다”고 드렸던 기도를 일깨워 주셨다. 남편과 함께 섬길 사역을 찾던 중에 공동체 장로님의 권유로 ‘나그네돌봄팀’에 지난해부터 동참했다.

정착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입은 상처가 크고 많다. 원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받은 트라우마와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이 그들을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한다. 그렇기에 그들을 섬길 때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몇 번의 필터링을 머릿속으로 해야 한다. 물론 단호하게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삶의 환경 개선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

‘나그네돌봄팀’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다. 돌봄 가족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가족들의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섰다. 서툰 한국어로 인해 학교에서 친구 관계와 학습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정체성 혼란도 경험하고 있다.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의 이웃으로 살면서 꿈을 키우는 다문화 차세대들을 위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나는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도움이 절실한 이 땅의 나그네 된 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미얀마 난민 사역을 협력하는 김포M센터 송 선교사님께서 오래전 요청하신 한국어 수업과 학습지도, 대

학 진학지도, 청소년 심리상담팀이 꾸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는 미래의 선교사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도와 후원으로 나그네돌봄 사역을 지원해 주실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우리 돌봄 가족들이 나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목자 하나님을 만나도록,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우리 함께 나그네들을 돌봅시다!”

“성경에 비추어 그리는 자화상”

카라바조(Michelangelo da Caravaggio)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레퀴엠 ‘Ingemisco(나는 탄식하나이다)’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미운 마음에 돌아섰다가 가여운 마음에 돌아보고 또 다시 들여다보고, 마지막엔 추억처럼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시인 윤동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위

와 같이 묘사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돌아볼 때 만족하기보다는 다소 안쓰럽게 느끼거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화가들은 어떤가? 화가들은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 본 모습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지면에서는 카라바조가 그린 자화상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자화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느 화가의 자화상

로마에 가면 많은 관광객이 바티칸 박물관의 예술작품들을 보며 감탄한다. 그런데 보르게세 미술관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하다. 로마의 시민들이 사랑하는 보르게세 공원 안에 멋지게 자리 잡은 이 미술관에 가면 바로크 최고의 화가 ‘카라바조’와 바로크 최고의 조각가 ‘베르니니’의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라바조가 말년에 그린 ‘이중자화상’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화가들과 달리 카라바조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다.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을 살짝 끼워넣는 방식으로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1610)>도 두 명의 주인공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음으로써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했다. 유명한 이중자화상이다. 그의 삶 마지막 부분에 그린 이 자화상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넘쳐흐른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젊은 시절을 뉘우치고 탄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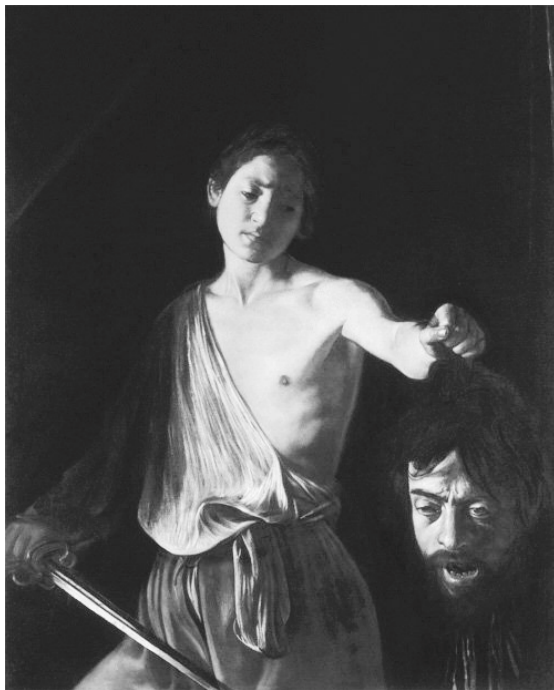
카라바조의 젊은 시절을 표현한 소년 다윗이 늙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 과연 카라바조의 삶이 어떠했을까? 카라바조는 타고난 성품이 과묵해서 감옥을 여러 차례 갔다 왔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러서 죽을 때까지 여러 도시와 섬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객사했다. 온갖

범죄를 저질러 도망자 신세로 이곳저곳을 전전했지만,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많은 후원자가 그에게 그림을 계속 의뢰했고, 그는 그 작품성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생생한 화법, 신비로운 빛의 도입은 즉각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켜 로마에 머물렀던 외국인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들을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했다. 그는 죽었지만, 그 영향은 루벤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리베라, 라투르 등과 같은 거장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겸손함이 오만을 이긴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표현한 소년 다윗의 손이 늙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 자신의 광포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두려움으로 가득한 골리앗의 얼굴과 그것을 들고 있는 순진무구한 소년의 얼굴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이중초상을 시도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듯 눈이 반쯤 닫혀있는 골리앗,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입에서는 카라바조 자신의 회한과 탄식이 묻어 나온다. 골리앗은 그림을 그리던 당시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이라.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골리앗으로 표현함으로 도박, 술주정, 결투와 투옥, 살인과 도피로 점철된 자신의 인



“화가들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완성되는 자화상처럼,
우리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생을 솔직하게 돌아보았다. 듣성듣성한 치아를 드러낸 검은 입속, 수염이 난 입언저리는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는 듯하다. 깊고 어둡고 강렬한 골리앗의 탄식과 슬픔과 연민이 느껴지는 모습은 세상에 보내는 겸허와 용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다윗이 오른손에 든 칼날에는 ‘H-AS OS’라는 철자가 새겨져 있다. 라틴어 경구 ‘Humi litas Occidit Superbiam(겸손함이 오만을 이긴다)’의 줄임말이다. 중세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에 달았던 주석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카라바조는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겸허한 자세로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란 것이 아닐까?

매일 그리는 자화상

카라바조의 자화상을 보면서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의 레퀴엠(Requiem) 중에서 ‘Ingemisco(나는 탄식하나이다)’를 들어보자. 베르디의 전기적 저술한 프랑스 작가 ‘알랭 뒤오’는 베르디의 레퀴엠은 ‘망자(亡者)의 오페라’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것은 진한 감동을 주는 한 편의 멜로 드라마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의 환영을 보는 듯한 힘과 함께 죽음의 신비와 맞닥뜨린 고통을 승화시킨다고 했다.

종교곡을 세속적 형태의 오페라로 표현한 것은 다수의 오페라를 작곡했던 베르디가 예순 즈음 작곡한 종교곡 ‘레퀴엠’이 가진 특성을 명쾌하게 드러낸 거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 곡은 종교곡이면서 세속곡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오의 말처럼 망자를 위한 오페라인 셈이다.

살아생전 많은 훌륭한 작품으로 칭송받았던 화가의 비참한 자화상은 세속적 형태의 오페라처럼 화려하게 표현되었지만, 죽음을 슬퍼하는 종교곡인 베르디 레퀴엠의 특성과 오히려 잘 어울린다. 레퀴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곡 ‘나는 탄식하나이다’를 들어보자.

우리는 인생이라는 화폭에 매일매일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2024년 초부터 그리기 시작한 올 한 해 우리의 자화상이 연말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 시인 서정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뉘우치지 않겠다”는 말보다 강하게 뉘우침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거울을 닦고 있는 셈이다. 큐티를 하면서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 화가들의 자화상처럼, 현실과 마주한 나의 내면을 보면서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기 성화의 과정 아닐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이 구절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남의 티끌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의 티끌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기 얼굴의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내면의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언급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내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고, 성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화가들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완성되는 자화상처럼,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 비추어 내면의 모습을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멘토가 멘티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자꾸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는데 ‘나는 혼자’라는 느낌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 같다.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때때로 겪는 감정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 혼자 계셨기에 다 알고 계신다. 게다가 우리는 진리보다 각자의 견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보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준 자세 몇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말하기’, ‘밝고 긍정적인 지체들과 함께하기’, ‘마음과 온몸으로 찬양하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등이다. 또한 기도에도 구체적인 응답들은 내가 살아

있다는 생동감과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히 느끼게 한다.

낙심되었던 것은 회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신랄한 목소리였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보다 참소자 또는 거짓 자아의 목소리인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패턴, 생활패턴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 훈련이 많았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첫째, 성경을 따라 자신에게 나의 참 정체성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빛이신 하나님처럼 너도 빛이구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등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또한 주님의 몸인 다른 지체와의 연합은 머리되신 주님과 동행할 일깨우는 것에 중요

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즐거움의 영으로 사워하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한다. 게다가 큰 악기 통 같은 몸을 두드리며 리듬과 소리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는 듯 했다. 마치 악기와 연주자가 가깝듯이 말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연습의 시작은 소리 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침묵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여 집중하게 된다. 매번은 아닐지라도 내적 음성 듣거나 어떤 그림을 보거나 말씀의 구절이 떠오르는 식이다. 마음에 평강이 차오르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냥 기쁨이 되는 때도 많았다(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평강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씀처럼, 큐티로 하나님을 알고, 듣는 큰 즐거움과 더불어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동행의 확신을 주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요 10:27).

진실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다윗의 시가 우리 마음 깊이 울리는 것은 그가 실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알고, 보고, 듣는 개인적 친분 가운데 증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주님을 못 듣는 줄 알고, 못 느낀다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다. 혼자라는 느낌과 달리 우리는 이미 주님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허은주 멘토
(갈렐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사랑에 빠질 때, 서로 다룰 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연인이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인 뇌가 극도로 활성화된다. 반대로 이성을 담당하는 뇌는 평소처럼 냉철하게 기능하지 못한다. 물론 이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관계에서 이성적으로 다뤄야 할 관계의 문제점들을 무시해 버린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시기에는 그 누가 조언을 해줘도 냉정하게 듣지 않는다. 연인관계에서 발견한 위기 신호 경고를 심각할 정도로 축소시켜 버리곤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염려돼서 진심으로 충고를 해줘도 새겨 듣기보다 편전을 돌려줄 가능성도 높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의 말처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뇌의 영역이 마비됐다고 할 수 있다. 감정적인 뇌가 지극히 활성화돼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게 된다.

‘상대가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믿음 있는 많은 사람이 주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인 자극이 거의 모든 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변의 조언이 늘 옳은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해줄 수 있다.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주변의 모든 조언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주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낭만적 사랑이라도 현실을 기반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연히 낭만적인 경험들이 많을수록 연인이 친밀감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결혼 후에도 그렇다. 즐겁고 행복했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있을수록 현실을 함께 힘 있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연인 관계가 발전해서 부부가 되고, 결혼생활을 하는 가운데 삶의 굴곡은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다. 부부가 행복과 즐거움이 최상에 달하는 최고점을 경험할 수 있고, 반대로 가장 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다. 부부 삶의 최고점에서는 감성적인 친밀감이 극에 달한다면, 두 사람 관계의 최저점에서는 이성적인 뇌의 영역이 극대화돼서 영향을 미친다. 부부의 삶 최저점에서는 이성이 부정적인 영향력과 함께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낭만과 상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감정적인 이끌림을 과감히 끊어내고, 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집중하게 된다. 문제의 허점이 무엇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그렇게 집중하면서 문제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 나간다. 시험을 치르는 시간은 뇌의 이성적인

영역이 가장 활성화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인과 부부관계에서 가장 이성이 활성화된 시점은 갈등이 극대화돼서 서로 다투는 시간일 것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 오해, 건드려진 과거의 상처 등이 순간 폭발해서 다투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과 다툼의 경험이 없는 부부가 없을 것이다. 부부관계 만족도의 최저점에서 부부가 다툼 때 자신의 모든 이성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공격하고 방어한다. 격해진 분노의 감정은 배우자를 논리와 이성으로 공격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격하게 공급한다. 낭만적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뇌의 영역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프게 배우자를 공격할 수 있을지 오래된 사건까지 기억하려고 애쓴다. 당장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기심과 승부욕이 극에 달하게 된다. 그렇게 다투고 나면 배우자가 세상 누구보다 미워지고 싫어진다. 서로 포용하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이제 그 누구보다 남인 것 같은 느낌과 확신이 강하게 남게 된다. 부부가 다툼 후에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은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 건드리며 거침없이 이성적인 칼날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경험했던 기억들, 즉 힘들었던 사건들, 서운했던 기억,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시간, 발견된 서로의 치부와 상처 등은 부부가 다툼 때 손에 쥐기 쉬운 싸움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부부 싸움 이후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다.

사랑에 빠진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한 부부는 감정적인 뇌가 활성화된 시기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뇌가 지극히 활성화된 시점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신혼시기 강렬한 감정을 동일하게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부부의 사랑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소하게 산책하면서 데이트하는 것도 사랑의 낭만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이다. 시간을 따로 떼어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낭만적인 사랑의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성적인 뇌가 활성화될 때도 회피하지 않고, 부부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절그러운 대화가 필요할 때는 서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때일 수 있다.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서로가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화하고, 바로 잡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부부관계의 낭만과 감성이 바닥이고, 비판적이며, 이성적인 뇌가 지극히 활성화되는 순간을 맞더라도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어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창 5:24)

일평생 다른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기대되는 일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잠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겁지만, 긴 시간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는 잠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거나, 식사 교제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대략 300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긴 시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동행할 수 없게 된다. 에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도 에녹을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히 11:5).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증거’가 무엇을

어졌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창 5:25)는 구절에서 ‘사라지다’는 히브리어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다. 실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가 어딘가로 옮겨져서 더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

“교만한 의에 붙들린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산 제물 되어,
오직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이다.”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에녹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물을 얻었다. 이것이 에녹에게 임한 복음이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그에게 주

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전의 존재 가치관과 생각, 경험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신의 의로 살았던 옛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선민의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역사를 경험했다. 이제 더는 박해자 청년 바울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인생이다. 자신의 교만한 의에 붙들린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 되어, 오직 복

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이다. 우리도 값없이 받은 ‘하늘의 선물’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가 우리와 동행하신다.”



김용태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뜻이 성취된 일

5월 27일~6월 2일
〈열왕기상〉 1:17~22:53,
〈베드로전서〉 1:1~21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자.

▶엘리아는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만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과 바아사의 집처럼 아합의 집을 철저히 멸하실 것이고, 아합을 충동해 악행하게 한 이세벨을 개들이 먹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합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겸비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로 연기하신다.

묵상포인트 2: 다수의 말이 곧 하나님 뜻은 아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성취된다. 아합은 권세와 부를 오래도록 누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악을 행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묵상포인트 1:

겸비함(겸손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품성이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악한 아합조차 겸비한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심판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하자.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 아람과 또다시 전쟁을 벌인다.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뜻을 묻기를 원했다. 그 과정에서 참선지자 미가야가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약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충돌해 이 전쟁이 패배하리라는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옥에 갇힌다. 아합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가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의 피를 개들이 핏는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 한편 유다왕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에 보호받는다. 북이스라엘왕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며 바알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묵상포인트 3: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 그가 전하는 견고한 믿음, 하늘의 산 소망, 거룩함에 기초한 사랑과 선행에 대해 묵상하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세에 구원을 얻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여러 시험으로 잠깐 슬퍼하고 근심하나 후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한다. 성도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겸비함(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다. 그동안 교만했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을 기대하자.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다. 조금하게 일을 진행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인지 기도와 말씀으로 확인받는 시간을 갖자. ▶다수의 말이 곧 하나님 뜻인 양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자. ▶아합의 죽음은 우연처럼 보였으나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였다. 우연 속 하나님의 필연이 내 삶에서 선한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행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시련이 무엇인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것이 믿음과 인내임을 기억하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가정, 학교, 일터 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파티마 자매를 위해서

파티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파티마 자매는 모로코 출신입니다. 한 달 전 자녀들과 함께 안산M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산M센터에서 파티마 자매와 교제하면서 그녀가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파티마 자매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파티마 자매에게는 딸과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합니다. 파티마 자매가 가정으로서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삼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파티마 자매의 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파티마 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도 잘 감당하도록 지혜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파티마 자매가 가정의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아람에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 정은유 자매(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제이흙·선한울타리 ‘공동세미나’

6월 16일 오후 5시 30분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회선교본부 제이흙입양위탁팀과 선한울타리지역 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16일(일) 오후 5시 30분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공동세미나는 배우 신애라 집사가 1부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제이흙입양위탁팀과 선한울타리지역팀이 지역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제이흙입양위탁팀이 우리나라 입양위탁 현황을 설명하고, 입양위탁 조건 및 절차 등을 알려준다. 선한울타리지역팀에서는 한국 보육원 현황과 자립준비청년 실태 등과 보육원아동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입양과 위탁, 보육원아동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제이흙 QR



선한울타리 QR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는 태국 치앙마이로 청소년반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8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다. 회비는 1인당 12만 원이다.

문의: 02-3215-3532
010-6476-0524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주말 4주) 진새골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2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부부당 35만 원이고, 자녀 1명당 5만 원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의 은혜’, ‘남녀 차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022-5228

선교사에게 발을 대여하자!

2000선교본부 ‘선발대’ 프로젝트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에서 ‘선발대(선교사에게 발을 대여하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선발대 프로젝트는 올해 여름 병원 진료, 가족 방문, 사역 보고, 국내 훈련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다.

6월부터 8월까지 최소 2주 동안 선교사들에게 국산 준중형 이하(아반떼, K5, 레이 등) 차량을 대여해 주면 된다. 선발대 프로젝트에 동참

을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에서 선교사역과 선교사 케어에 동참할 성도들을 모집한다. IT(웹디자인, 퍼블리셔), 대학 편입 및 외국인 한국 유학 지원, 한국어교육, 초중등 수업(과학, 수학, 영어, 예체능) 수업을 섬길 성도들이 필요하다.

문의: 010-2822-9970



12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6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2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타교회 성도 신청가능). 6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대면과 비대면으로 과정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6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수료하면 2학점을 받을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12기 갈렙선교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미션 헬퍼십’, ‘타문화 이해’, ‘이주민 선교’ 등을 주제로 한철호 선교사, 서원순 권사, 조경근 목사, 노규석 목사, 한숙영 권사, 김홍주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2833-9936

5월 세례자

■서빙고 김호진 920524 문지영 820606 박영준 560412 박인하 791120 이현승 850131 정현영 951024 유아 권예성 220119 권주용 유선경 배은오 221121 배용한 어진주 이지훈 220914 이재원 김지희	장대현 230424 장이슬 230424 장대현 231025 최원준 230112 황용택 230112 ■양재 김준원 010524 김충한 811117 박지애 800210 정민수 910102	입교 김영은 881203 김영혜 830714 최시은 001226 최주는 970822 유아 김이엘 230422 김태훈 이민정 김하이 221011 김태환 신고은 박로이 231006 박지용 장시은 박루하 231006 박지용 장시은	박유안 240110 박은찬 류해원 손지우 220315 손영국 김효진 정우석 221213 정규석 전근영 조윤섭 231130 조규원 정은하 하도준 230426 하동우 김화원 〈대학청년〉 ■하늘 이예림 020225	정다은 010321 입교 손서정 041107 오광목 961206 이유은 021114 ■CH PLUS 김지연 911212 ■W 입교 김하은 040318
---	---	--	---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A 23기 단기선교사 모집

6월 19일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

FA 23기 선교사를 모집한다. 자격 조건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9년 6월생 이하), 해외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례교인이다. 6월 19일(수)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고, 이메일(fa@tim.or.kr)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FA선교사지원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FA선교사지원서와 추천서는 두란노국제선교회(TIM)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FA 23기로 선발되면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내에서 훈련하고, 8월 셋째 주부터 내년 1월까지 20주 동안 인도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역할 예정이다.

문의: 070-4464-8105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특별한 만남이 있는 어느 날 오후

양재 열린새신자예배 ‘전도 토크콘서트’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6월 한 달 동안 전도를 위한 토크콘서트 ‘특별한 만남이 있는 어느 날 오후’를 개최한다. 매주 주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전도 토크콘서트 ‘특별한 만남이 있는 어느 날 오후’에서는 6월 2일 유투버 박위(위리클), 색소폰니스트 양현욱, 9일 박현우 대표(이노레드), CCM 가수 지미선, 16일 가수 윤복희, 23일 가수 범키, 30일 성악가 홍혜란, 최원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초신자들을 위한 선물 수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도 한다. 5월 28일, 6월 4일, 11일, 18일, 25일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QR코드 참고



전도 토크콘서트 신청QR



온라인 기도회QR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난민 수술 및 치료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난민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 의료팀으로 구성된 아웃리치팀이 우간다 북부 팔로니아 남수단 난민 정착촌에서 진행한 의료사역의 후속 조치다.

NGO 더멋진세상 아웃리치팀이 우간다 난민촌을 방문해서 환자 약

460명을 진료했다.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진료를 하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당뇨 환자 2명과 구순열 환자 2명을 현지 의료시설과 난민기구와 연결해주고, 이번에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오는 6월 13일 구순열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당뇨 환자를 위한 1년 치 약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5월 26일 오후 5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B2)

가정사역 조은지	관악금천 김성인 박병진 박주영 이선미	김건우 김보미 안서영	서빙고 조광식 최원경	신용산 김은호 김주연 설윤아 안찬숙 이동준	고윤석 김태희 김현중 송수환 이서영 조성은 홍민정	유원철 정윤주	유성유 OCC 김은혜 김휘성
강서 강모세 계효석 모미화 양태규 엄진호 이준희	김포 김수진 조영남	마포 권봉현 박지현 이지현 홍성욱	성동광진 김민정 김양미 김효은 유수빈 유종권 이재현 전지현 정유경 한병용 홍덕표	양천 곽성근 이금남 한상요	이천 이수 송혜연 이화영	중종로 김종중 박형준 안명화 유아영 이민영 이한나 이혜진 정영혜 조광현 조현래 최정인	S브릿지 박승아 성미경 윤연주 이승한 이해나 정소영 정승지 정윤미
고양은평 박현경 배현주 엄정임 윤종학 이덕근 이혜란 한정도	동대문 김윤석 김진하 박동제 유정엽 이선희 최진명	서대문 박경미 박성완 변재한 이연희 이혜정 장혜정 조명근	성북 공창우 이소원 정란	영등포구 김소연 김원기 문윤혜 이재원	이촌 김성신 이종호 정의진	일산파주 김효진 서수경	한강 문지경 서충우 육창석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제이흠 입양가족의 간증



/ 고봉익 팀장(입양위탁팀 제이흠)

“저는 결혼하면 입양을 하고 싶어요.”
연애 시절 아내는 결혼하면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으로도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의사를 물었다.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던 나는 별생각 없이 “오케이!”를 외쳤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 10년 차 첫째가 8살, 둘째가 4살이던 해 아내는 “이제 우리 천천히 입양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라며 잊고 있었던 말을 다시 꺼내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런 나에게 아내는 “당신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서두르지 않을게요. 함께 기도해보요”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아내는 천천히 하지만 고단수로 나와 두 아이를 준비시켰다. 온 가족이 함께 영화 보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입양과 관련 있는 영화를 보게 했다. 아이들에게는 입양과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4년 정도 지났다. 어느새 내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복음이 곧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음에 한가지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입양 후에 내 마음에서 친생자녀와 조금이라도 차별이 느껴지면 어떡하지?’였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이 세상

입양은 선물이다!

에는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곁에 있어 줄 아빠가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이 사라지고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교회 게시판에서 ‘제이흠 입양가족 모임’ 포스터를 보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 입양가정들과 함께 예배하며 입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확인했다. 우리 부부는 입양기관을 찾아가 입양신청을 했고, 얼마 뒤 하린이 사진을 받아봤다. ‘이 아이가 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우리 딸이구나!’ 우리 부부는 계속해서 사진을 보고 또 보며 감격해했다. 하린이가 우리집에 오고 지난 6년 동안 받은복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는 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가정이 필요한 수많은 아이가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들으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꿈꾼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배영주 성도(대전온누리교회)

2020년,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었고, 그동안 덮어두기만 했던 내면의 여러 문제로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아이들의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돼 내성적인 두 아이 성격이 더욱 내향적으로 변했다. 은둔형 외톨이 모습으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무기력증을 겪었고, 이전보다 조용해지고 정적으로 변했다. 방문 밖으로 점점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상실해갔다.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 일을 겪고, 동시에 학교의 삶과 신앙생활의 괴리에서 오는 부정적인 의문들이 아이들의 내면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질문에 부모로서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 무렵, 회복사역을 함께 섬기던 한 지인이 파워임팩트 간증을 나눠주셨다. 세종에서 도곡까지 8주 동안 참가하는 게 다소 부담되는 거리였지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서 파워임팩트에 참석했다. 파워임팩트를 수강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에만 몰두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부부관계 회복과 성장으로 돌리셨다. 하나님은 남편과 나에게 자녀들

정말 변한 것은 나!

을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이 기다림을 통해 위기를 건너가게 하셨다. 아이들을 아웃리치에 보내기 전까지 관계와 물질 등 우리 부부의 마음을 흔들려는 여러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돌파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고1, 중3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서 귀한 경험을 허락하셨다.

사실 나는 훈련 받는 내내 남편과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말 변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종용해 왔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과 공항 로비에서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다. 그 순간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도록 지켜봐주는 부모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같은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며, 사랑 안에서 돌보는 온유한 보호자로 살기를 기대한다.

■ ‘Why Mission?’ 수료 간증



/ 정부은 성도(분당A공동체)

나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속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관점에서 읽었다.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역사를 써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시간 순서대로 읽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을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본 적이 없다.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쉽게 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Why Mission?’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는 눈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에게 보내심을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배웠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는 이름도 모르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선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전해졌다는 사실이 감동이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했다.

사실 Acts29 비전이 예전의 나에게와는 전혀 달랐다. Acts29 비전이 나에게와는

나의 선교적 삶!

어 있던 단어였는데, 갑자기 크게 다가왔다. 나도 Acts29 비전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불교 신자였던 내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봤다.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침에 QT하고, 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화개하면서 사는 모습이 보였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Why Mission?’을 수료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쉽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선교적 삶이 시작됐다. 오는 7월 있을 분당A공동체 몽골 아웃리치가 기대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소감



/ 한형창 성도(평택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등록하면서 이제는 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가훈이 진행되면서 강의와 영상, 조별 나눔이 모두 내 이야기였다. ‘피플퍼즐’ 시간에는 나와 아내의 성격 차이 등을 배우면서 아내의 성향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성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거나 관심 가지 않고, 오직 나의 성향에 맞추지 못하는 아내를 탓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가계도를 그리면서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대물림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된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두려웠다. 나는 기다리지도, 친절하지도 못했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가졌던 나의 잘못된 마음이 보였다. 아내를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동안의 무심함을 반성하고 화개했다. 두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권위만 세우려 했다. 칭찬보다 실망을 주고, 좋은 말보다 큰소리만 치는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모습만 보였음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앞으로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프러포즈하는 시간이 있었다.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 수료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아이들이 입장했다. 엄마 아빠가 하가훈 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Holy Scout’을 경험했다.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하가훈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멋진 공연도 했다. 엄마 아빠가 거룩한 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가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가득한 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부터 나는 가정의 중심이 되어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로서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장로칼럼

철우한빛교회 이야기

원우현 장로
(서빙고공동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철우한빛교회 이야기는 이미 사반세기 전의 추억이 됐다. 하지만 나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은혜의 기억을 잠시 회고하고자 한다.

당시 2000년을 맞이하면서 국내외 분

위기가 큰 변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떠들썩한 예언을 하면서 들뜬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감돌았던 때다. 그 즈음 나는 1998년 11월 장로장립을 받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면서 미국으로 떠났다. 마침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큰 처남 이근섭 목사가 시무하는 미국 아르케이넘 감리교회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대형화된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면서 나는 2000년에 주님이 오신다면 교회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르케이넘 감리교회에 도착한 그 날 저녁, 교회에서는 탄일중 성가를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시골 교회에서 영어 설교를 하는 이근섭 목사가 전혀 낯설지 않고 자랑스러웠다. 예배 이후 'Hide and Seek' 놀이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2층과 아래층을 뛰어다니면서 숨고 들기곤 했다. 철없는 아이처럼 이국의 첫날이 마냥 즐거웠다.

다음 날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는 아르케이넘의 작은 교회 'Wind of Chapel'을 찾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도하며 긴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이 생겼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작을수록, 수직적으로는 하늘 높이 주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교회의 제도와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갓난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 2009년 11월 28일, 주변 농가를 방문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원순석 목사님을 청빙해 철우한빛교회를 시작했다. 아늑한 전원주택처럼 보이고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 처소를 마련했다. 농촌 마을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교회를 '철우 열림마당'으로 개방하고, 정규예배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드렸다. 화요 성경 아카데미는 오후 4시에 열었다. 원순석 목사님과 함께 철우한빛교회의 신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대학생 전도에 힘썼다. 주말농장 실용음악교육 학생 공부방도 열고, 철우 한빛아카데미를 병행했다. 100일 영어 산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님과 함께 걷자' 캠페인도 시도했다. 한 사람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부가 매주 수원 영통에 들러 차편을 제공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훈련받던 연단의 기간을 지금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

'철우'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에덴동산 같은 우주를 뜻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의미한다. 철우한빛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생히 알게 했다. 이후 작은 교회는 생태적 한계로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없고, 엄마 닭이 함께 알을 부리로 쪼아주어야 하듯 정착된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금의 십일조나 재정지원과는 다른 문제다. 대형 교회마다 참석 성도 자리가 모자라 지하에서 화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성도가 넘치는 대형 교회의 성도는 소강(小強) 개척 교회를 찾아 그 어디든지 두어 달에 한 번은 참석하는 '출석의 십일조'를 드리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던지시 건네고 싶다.

권사칼럼

러브소나타의 은혜와 감격!

이연승 권사
(강남D공동체)

러브소나타 '효고'는 나의 두 번째 러브소나타 참가였다. 지난해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참가했었다. 공동체 식구들은 다들 부부 동반으로 참가했는데 나만 싱글이었다. 싱글로 참가해도 넘치

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었다. 러브소나타 '미야기'가 끝나고 '러브소나타의 감동을 남편과 함께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은혜의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다음 러브소나타에는 꼭 남편과 함께 참가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러브소나타 '효고'에 남편과 함께 참가했다. 게다가 남편은 봉사팀장까지 맡았다. 지난해 느꼈던 아쉬움을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시는 것 같았다. 남편이 러브소나타에 함께 참가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러브소나타 '효고' 참가를 결정하고 '한일 합동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한일합동기도회가 매주 화요일에 열렸는데, 많은 일본 실행위원이 참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간절함을 보고 나도 러브소나타 '효고' 출발 전까지 7회에 걸쳐 이어진 한일합동기도회에 매번 참석했다. 일본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러브소나타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열린 나와 남편이 속한 B2팀의 '러브소나타 기도회'에도 매주 참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양국의 기도를 들으며 기뻐하셨을 하나님을 떠올리며 더욱 기대했다.

러브소나타 '효고'는 은혜 그 자체였다. 가스펠나이트부터 일본의 회복을 위한 기도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 본 집회가 아님에도 행사장을 가득 채울 인원이 참석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일본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일본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일본 청년들이 강대상으로 올라갔다. 그들을 위해 행사장에 모인 많은 사람이 축복기도를 했다. 그들이 일본을 이끌어 나갈 다음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러브소나타 본 집회가 고베문화홀 대홀에서 막 올랐다. 고베문화홀에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회복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회복을 갈망하며 행사장에 들어오는 그들을 진심을 담아 환영하고 축복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기쁘고 깊은 회복을 경험했다. 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귀한 잔치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했다. 러브소나타 집회가 끝나고 643명의 결신자가 세워졌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효고 땅을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안다. 일본에는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 귀한 영혼들이 이단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연결되도록 계속 중보기도할 것이다. 이곳의 젊은 신학생들이 참 복음을 배우고 전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러브소나타를 통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본 영혼들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부천온누리교회)

<시편> 57편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다니!' 하고 놀랐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수천 명의 정예군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그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본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놀라운 믿음이 한 가지 있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신다!'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가 생각났다. 동네 눈에 물을 채워서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놀

다가 심하게 넘어졌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척추결핵이 발견된 것이다. 우연히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발견된 척추결핵이 나에게서는 감사한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무척 당황하셨다.

"수술하게 되면 더는 키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약이 독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의언함을 보이시려고 태연하게 병원을 나오셨다.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천호대교를 건너 집까지 걸어갔다. 병원에서 집까지 무려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중간에 내가 힘들다고 하니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업고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 당시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한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 나는 1년 동안 병원에서 독한 약물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 모든 순간 어머니는 나와 함께하셨다. 나를 다독이며 돌봐주셨다.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의사가 되어주셨으며, 사랑이 되어주셨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편> 57편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고백이 이와 같다.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서 사고를 쳐서 부모가 수습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셀라)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시 57:6-7).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다윗의 근거 있는 영적 자신감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나의 자신감으로 삼고, '예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도움, 피난처이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린다.

부천온누리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병환의 기도제목과 어려운 상황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한다.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정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운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운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및 유지보수 1명,
새벽나라 잡지편집자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
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집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수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운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집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구약학
접수: 5월 28일 17:00까지
문의: 02-570-7192
*www.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필리핀 의료선교 약사, 간호사 모집
일시: 7월 4일~8일
장소: 필리핀 보홀섬
문의: 010-4369-1211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곡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운유흐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온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집사의 쉽고 재미있는
신약 성경 브리핑!



@yeon*****

오십쇼 덕분에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yhlk*****

초신자라서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말씀을 쉽게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xo8i*****

너무 기다렸어요 ♥ 오십쇼 만나고 6개월 만에 성경 2독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CGN 유튜브, 팟캐스트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CGN TV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오십쇼2
1편 바로보기



고정 게스트
최복순 반장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오십쇼